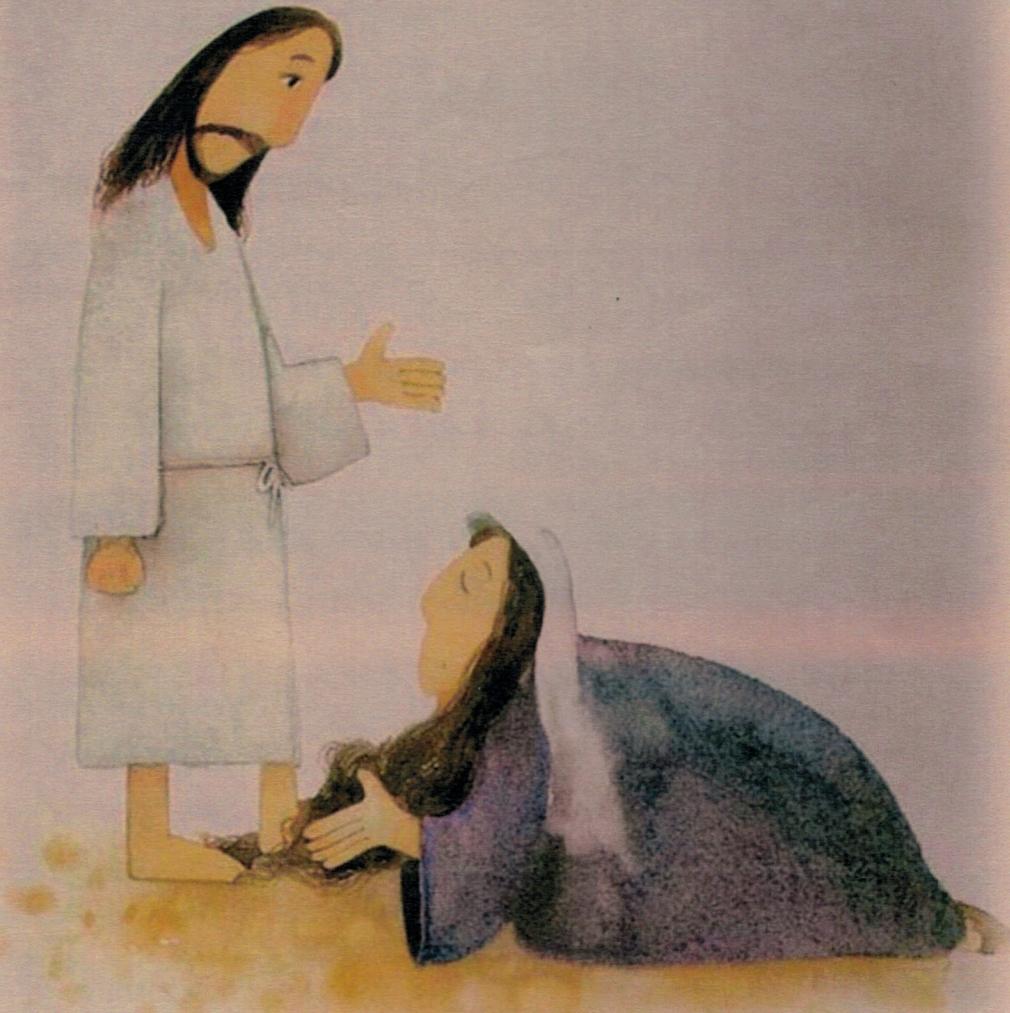




(자) 사순 제5주일
(Vi) 5th Sunday of Lent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Let the one among you who is without sin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요한 8,7 / Jn 8:7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월/수/토 휴무 M/W/Sat Closed

(Until 11/30 Temporary Schedule)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지식	(총구역장)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굳셈	손(데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울리나)	951-454-3182
경외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4월 / April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For health care workers

We pray for health care workers who serve the sick and the elderly, especially in the poorest countries; may they be adequately supported by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사순 제5주일 (다해) / 5th Sunday of Lent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하느님, 제 권리(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Give me justice, O God, and plead my cause against a nation that is faithless. From the deceitful and cunning rescue, for you, O God, are my strength.

【제1독서/First Reading】 이사 43:16-21 / Is 43:16-21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filled with joy.

【제2독서 / Second Reading】 필리 3:8-14 / Phil 3:8-14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Praise to you, Lord Jesus Christ,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Even now, says the Lord, return to me with your whole heart; for I am gracious and merciful. ◎

【복음 / Gospel】 † 요한 8:1-11 / Jn 8:1-11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Has no one condemned you, woman? No one, Lord. Neither shall I condemn you. From now on, sin no more.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4/3 10am	4/3 3pm	4/5 7:30pm	4/6 10am	4/7 10am	4/8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율리안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불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채말기 모니카, 변정창 마리아, 신바오로, 김아네스	Charles Angel Julie Fennel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윤요한 박야고보
생미사(L)	홍마리고레띠,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 김다니엘, 이도미틸라, 이미자 데레사&조엔, 박우슬라 가정, 이디모테오&카타리나, 현마리안나 가정, 김수진 데레사, 홍요안나&미카엘, 임미숙 로사 성발바라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여기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Let us all pray for the intentions.

간음한 여인

예수님은 늘 용서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용서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 고소하려고 구실을 만듭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요한:8.5)”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나 떠보는 교활하기 짹이 없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모습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사회적 통념을 들어 예수님을 옳아 메우려고 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와 자비를 들어내 보이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8.7)”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하나 둘 씩 투덜거리며 돌을 던져 놓고 사라집니다. 그 여자 외에는 예수님 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둘 가운데의 대화의 백미는 “너를 단죄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요한:8.10-11)일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극적인 장면입니다.

사람을 죽일듯한 광기를 잠재우는 예수님의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는 말과 함께 애처롭게 땅에 엎드린 여인 가운데의 대화는 용서와 자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근간에 자리 잡은 단죄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추측하건데 여인에게 있어서 첫째, 간음에 내몰린 이유가 있고, 둘째, 그 이유는 특수한 상황 즉, 각자에 놓인 처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면 안에 자리 잡은 강박이나 아픔들로 과거의 겁탈의 경험이 있을 경우 자신의 몸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쉽게 남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한 면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며 넓게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처해진 현실 앞의 행동의 모습은 나름 사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A Woman Caught in Adultery

Jesus continually emphasized the word “forgiving.” He also told us repeatedly that God is the God of forgiveness. To such a man,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rought a woman who had been caught in adultery. They were to test him so that they could have some charge to bring against him. In John (8:5), they said, “Now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en. So what do you say?” They conspired against Jesus by setting up Jesus to go against either Moses’ law or common law.

However, Jesus brings out mercy. “Let the one among you who is without sin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John 8:7) And in response, they went away one by one, beginning with the elders. So he was left alone with the woman before him. The best part of the 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the woman follows: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No one, sir.” (John 8:10-11). It is like a climax in a movie.

Jesus’ word, “Let the one among you who is without sin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chills down the murderous fury. His words with the woman reveal forgiveness and mercy. There can be surprising reasons behind Jesus’ refusal to condemn. We can guess that the woman may be forced to be accused of adultery due to surrounding conditions. She could be mentally or physically impaired; she may have trauma because she was assaulted; she may have gotten weakened from a series of incidents and relied on others.

We are often too quick to judge people. Still, Jesus teaches us to be patient and look closer. He invites us to understand that people can be tied to their surroundings.

양심성찰

- 고해성사를 본지 얼마나 되었는가? (성탄 전, 부활 전 판공성사 - 즉 의무 고해성사)
- 지난번 고백 때에 잊고 고백하지 않았거나 축소하거나 거짓 고백을 하지는 않았는가? (몰고해)
-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계율리 하지 않았는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신명기 6,5)
- 주일미사에 빠진 적은 없었는가? (기본 의무)
- 주일미사만 겨우 참례하고 고해성사도 판공성사 때만 마지못해 받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 하느님의 계명이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 영성체를 자주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성사를 준비하였는가?
- 나는 하느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였는가?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의 삶과 자유의지를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시키는 것)
- 하느님을 머리로만 믿었는가? 마음으로 믿고 따랐는가?
- 나는 주님과 더욱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가? (기도, 매일미사 책에서 그날의 성경 읽기)
-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기도 생활을 잘 해왔는가?
(아침기도, 저녁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의 기도 등)
-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기도하였는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였는가?
- 기도와 성서 공부를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세상적인 일, 인터넷, 영화, 게임, TV 시청 취미생활 등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 나는 언제나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였는가?
- 나의 삶에서, 하느님보다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가?
- 나는 잘못된 행동으로 하느님께 모욕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었는가?
- 나는 날마다 복음을 따라서 살도록 노력하고 있었는가?
- 나는 신앙인답게 살았는가? 몇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말을 옮기지는 않았는가?
-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야 할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펴 드렸는가?
-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교육하는 데에 부족함은 업었는가?
- 배우자나 이웃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의논하였는가? 아니면 독선적으로 군림했는가?
- 나는 이웃에게서 내가 바라는 정도로 그 이웃을 사랑하였는가?
- 불의를 보고 외면하거나 고통을 받는 이들을 보고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일이나 능력을 앞세워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 교만과 우월감으로 이웃을 판단하거나 얕보지는 않았는가?
- 대죄 중에 먼저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영성체를 영하지는 않았는가? (몰영성체)
- 가족, 친척, 이웃을 사랑하기 보다는 손해를 끼치며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일은 없었는가?
- 나는 나와 함께 살고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있었는가?
- 나는 내 이웃이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왔는가?
- 나는 가장 미소한 형제자매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는가?
-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 원한이나 미움을 품고 있지 않았는가?
- 육체의 쾌락을 위한 음란한 짓이나 이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었는가?
- 남을 모함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남의 인격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일은 없었는가?
-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며, 나눔의 생활 외면해오지는 않았는가?
- 교만, 인색, 음욕, 탐욕, 나태, 분노, 질투 (칠죄종 - 모든 죄의 근원)에서 벗어나 정화된 삶을 살려고 얼마나 힘썼는가?
- 나의 교만과 나태한 생활로 상처를 받은 이웃은 없어는가?
- 생명을 경시하거나 자연환경을 해치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금식이나 금욕을 지켜서 가난한 이웃들과 진정으로 나누었는가?
- 작은 분노, 작은 거짓말, 불평불만, 혐담, 공공질서 소홀, 시간 낭비, 지나친 취미생활, 불필요한 걱정 등 사소한 잘못들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 지금 친인척이나 이웃관계에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던 간에, 미움, 분노에 매여 있지는 않는가? (용서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4/3 Sunday		4/5 Tue	4/6 Wed	4/7 Thurs	4/8 Fri	4/10 Sun	
Mass Time	10am	3pm	7:30pm	10am	10am	7:30pm	10am	3pm
해설 / Narrator	박세실리아		김소화데레사	박분도	변리오바	김소화데레사	송율리안나	
독서 / Readers	신모니카 손데레사	Maryann Angel Asela Garcia					김분도 김세실리아	Cecilia Park Daisy Ramos
전례부 / Altar Server	안세실리아 오미카엘라	최클라라	박아가다	안세실리아	최클라라	김마지아	김마지아, 박아가다 오미카엘라, 최클라라	안세실리아
반주 / Organist	강실비아	Juliana Cho	조율리안나	김미카엘라	김미카엘라	조율리안나	김스콜라스티카	Juliana Cho
봉헌 / Offertory		Antoinette A. Cecilia Cosme						Antoinette A. Cecilia Cosme

사순시기 복음묵상과 묵주기도

저녁 9시 Zoom Meeting ID: 860 6709 3499 Passcode: 19713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지식(환희)	경외(빛)	굳셈(고통)	의견(환희)
6	7	8	9	10	11	12
사목협의회(빛)	지혜(고통)	통달(환희)	효경(빛)	성가대(고통)	연령회(환희)	해설단(빛)
13	14	15	16	17	18	19
사목협의회(고통)	양업회(환희)	사목협의회(빛)	성체조배회(고통)	셀 기도회(환희)	성경공부(빛)	성무일도(고통)
20	21	22	23	24	25	26
사목협의회(환희)	성령기도회(빛)	주일학교(고통)	제대회(환희)	재정위원회(빛)	전례부(고통)	사목협의회(환희)
27	28	29	30	31	4/1	2
사목협의회(빛)	레지오(고통)	지식(환희)	경외(빛)	굳셈(고통)	의견(환희)	지혜(빛)
3	4	5	6	7	8	9
사목협의회(고통)	통달(환희)	효경(빛)	성가대(고통)	연령회(환희)	해설단(빛)	양업회(고통)
10	11	12	13			
사목협의회(환희)	전례부(빛)	성체조배회(고통)	전신자(환희)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일정

주일 미사후 야외 ‘십자가의 길’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어 봅시다.

3/6(일): 경외 3/13(일): 굳셈 3/20(일): 통달 3/27(일): 지식 4/3(일): 지혜 4/10(일): 의견 4/15(금): 효경

※ 담당 구역은 각 처에서 기도하실 분을 미리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소식 / Parish News

◆ 사순시기 복음묵상과 묵주기도

기간: 3/2~4/13 오후 9시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3/6, 3/13, 3/20, 3/27, 4/3, 4/10

이 기간동안 주일미사 후

야외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 사순판공(penance and reconciliation)

일시(Date/Time): 4/8(금/Fri) 1st: 3-5pm 2nd 7-9pm

◆ 교구 성유축성 미사(Chrism Mass)

일시(Date/Time): 4/12(화/Tues) 3pm

장소(Place): St. Frances Xavier Cabrini Church

12687 California Street, Yucaipa, CA 92399

◆ 성삼일, 부활 대축일 미사 시간 / Paschal Triduum, Easter

- 주님 만찬 성 목요일(Holy Thursday): 4/14(목/Thurs) 7:30pm
(이날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There will be no 10am mass)

- 주님 수난 성금요일 (Good Friday): 4/15(금/Fri) 7:30pm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Easter Vigil): 4/16(토/Sat) 8pm
(이날 사순예물 봉헌이 있습니다.)

-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Easter Sunday): 4/17(일/Sun)
Korean: 10am / English: 3pm

◆ Bishop's Dinner (주교님의 만찬)

일시(Date/Time): 5/14(토/Sat) 5pm

장소(Place): JW Marriott 74-855 Country Dr. Palm Desert

회비(Cost): \$250

4/24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룹 성경공부반 성전 앞에서 모집합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복음)

문의: 윤심포로사(성경봉사회): 951-966-5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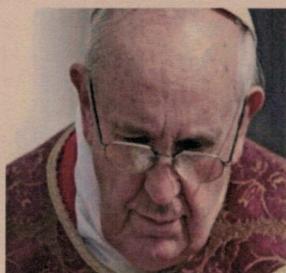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요한 8.11

From now on do not sin any more. Jn8,11



"당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 하느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가
-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례하는가
-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가
- 하느님의 뜻에 자주 반항하는가
-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가
- 질투하거나 화를 잘 내는가
- 타인에게 정직하며 공평한가
-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가
-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가
- 음식이나 물건을 남용하지 않는가
- 재물에 몰두하지 않는가
-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가
- 세속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고 있는가
- 봉사받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 친절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는가

3/27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현금/Plate	10am: \$758 (106명) 3pm: \$240 (40명)
교무금 Envelope	\$2,060 이유진, 이미자, 이순혜, 김영희, 이숙, 이훈, 윤원균, 박도원, 김혜진, 변마태오
교구발전기금 DDF	\$280 이훈, 이숙, 윤원균, 변마태오
합계 Total	\$3,338

주보광고 / Bulletin Ad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ANTEX
EXTERMINATING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교리상식 101

10. '보편 지향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원칙이 있나요?

'보편 지향 기도'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 지향은 간단명료하고, 자유롭고, 짤막하게 공동체 전체의 청원을 표현해야 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71항 참조). 따라서 개인적인 청원이나 신앙 고백, 교리, 교리 해설이나 설교와 비슷한 내용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매일미사』와 같은 전례 안내서에 실려 있는 보편 지향 기도는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기도를 바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참고해서 각 공동체가 스스로 준비한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또한 신자들이 미사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자들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신자들은 이 기도로 말씀 전례 때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세례 때 받은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69항 참조).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